

# 군산시의회 경건위 현장의정 '눈길'

의원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등 방문

애로사항 청취·병합처리시설 도입에 대한 검토 요청  
주민들 겪고 있는 애로점 듣고 해결 할 수 있도록 주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가 발로 뛰며 민생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임시회 회기 중에도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안건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추진 사업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먼저 지난 5일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군산시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처리, 민간위탁 등의 어린이교통공원 디지털체험 존 구축사업 추진, BTL사업지구 실태 조사 용역 시행 등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처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경건위 의원들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해신동 주변 정비에 맞춰 차별화된 수산물 관광사업 개발 및 랜드마크화 추진으로 수산물 시장

의 편익성을 증진해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맛과 멋이 어우러진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교통공원 디지털체험존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유아들의 참여 관심도를 높이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식 체험시설과 병행해 디지털체험존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군산 BTL사업지구 실태조사 용역 시행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사업을 둘러싼 부실 공사 의혹으로 시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으며 사업진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 실상을 명백히 밝히고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6일 경건위 의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폐자원에너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발로 뛰며 민생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화시설 민투사업 현장,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 현장,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현장,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8개 주요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해당 관련부서로부터 현황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방문해 실태 및 시설 운영에서 비롯된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와 함께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병합처리시설 도입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지역 내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지역 주민들이 우수가마다 겪고 있는 애로점을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현장에서는 태양광모듈의 시설물들이 태풍이나 홍수,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더 면밀한 검토와 조사·수질검사 등 특단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영자 위원장은 "회기 중이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간담회와 추진 사업 현장방문에 참여해 주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민의 불편사항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현 장방문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행복도시 군산,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기본 교육 개최

군산시가 후원하고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제8차 기본교육'이 6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올해 3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별 교수의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강연이 진행됐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부모는 가정의 선생님이 만큼 부모교육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 방법을 배우고 서로의 다름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평생 대학과 노인대학이 성인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한 것과 같이 체계적인 부모학교 운영을 통해 어린이와 부모들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어린이행복 부모학교는 기본·공동교육 2시간, 실습교육 5시간 총 7시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본교육 2회 514명, 실습교육 8회 223명이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감성코칭 교육에 참여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만경강변 자전거길 완공 되기전 라이더들 몰려

볼거리 많고·라이딩 중 바라보는 석양 등 경치도 빼어나

만경강변에 조성 중인 자전거길이 완공도 되기 전에 라이더들이 몰려드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만경강 유역 지역협의회 참여 기관 관계자들은 6일 이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불편사항 점검에 나섰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은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서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에 이르는 43.8km 구간에 만경강 자전거길을 조성 중이다

현재 전체 구간 중 익산시 석탄동에서 김제시 백구면 유랑리에 이르는 43km를 제외한 39.5km 구간에서 라이딩이 가능하다

내년 말까지 만경강 자전거길 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안내 표지판 등도 전 구간 개통 시점에 일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도 자전거길 구간에 비비정과 세심정, 신천습지 등 전복을 대표하는 볼거리가 많고, 라이딩 중 바라보는 석양 등 경치도 빼어나 라이더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날 점검에 나선 익산국토청 김철홍 청장과 전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의 만경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경강과 인근 도시 간 자전거길을 연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어린이 공원 등이 포함된 만경강 친수공간 조성시 지역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명품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익산=우병희기자

## 익산소방서, 전국체전 대비 '긴급구조훈련' 실시

익산소방서가 6일 성공적인 제99회 전국체전을 위해 익산시 종합운동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조훈련' 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긴급구조훈련 기관합동 도상훈련은 전국체전 기간동안 재난 발생시 소방관서 및 유관기관·단체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훈련에는 8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재난(화재) 발생시 각 상황마다 기관 및 단체의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훈련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가 6일 소회의실에서 정한을 익산시장과 4대종교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회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 전국체전 성공개회 4대종교도 함께하는

익산시, 대표자들과 업무 협약 체결

익산시가 6일 소회의실에서 정한을 익산시장과 유종영 목사(익산시기독교연합회장), 민용화 일행스님(익산시삼일연합회장), 정전경 교무(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상임이사), 김경수 신부(나바위 성당 주임신부) 등 4대종교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회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4대종교와 함께 전국체전의 모토인 화합체전을 이루고 성공적인 대회를 목표로 체전 홍보에 함께 힘쓰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참가한 한 종교관계자는 "2018 전국(장애인)체전이 종교와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익산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한을 익산시장은 "4대종교가

체전 성공개회를 위하여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어 감사하다"며 "4대종교가 우리 시민들이 함께 결속하여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체전 성공개회를 위하여 숙박업, 음식점, 청소업, 운송업, 우체국, 대형마트, 전통시장, 하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다양한 분야와 업무 협약을 통해 친절하고 아름다운 익산 만들기 및 체전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주인 12일 오후4시30분부터는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정한을 익산시장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시민서포터즈,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 전국체전 성공개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보건소, 국가 암 검진 사업 적극 참여 당부

군산시보건소(소장 정형태)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발생 및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6일 보건소에 따르면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

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8년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시민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 유방암, 간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짝수·홀수년도 모두)이다

/군산=김정훈기자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선정

군산시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심의회를 열고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단독 접수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사업 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엄정한 과정

을 통해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를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관으로 재선정했다

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는 2018년 10월부터 5년간 군산시로부터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